<h1>나 혼자만 레벨업-20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qaefbddbccc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0화</p>  
<p>헌터들이 다 같이 나가려 하자, 유진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.</p>  
<p>"보스방에 저하고 진우 형만 있으라고요?"</p>  
<p>황동석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.</p>  
<p>"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도 안 깨는 놈인데 별일 있겠습니까? 애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같이 가면서 담배나 한 대 피고 오려고요.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."</p>  
<p>진우는 황동석의 장황한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피식 웃었다.</p>  
<p>'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. 근데 다 몰려간다니, 우리를 너무 머저리로 보는 거 아닌가?'</p>  
<p>랭크가 낮다고 깔보고 있는 거겠지.</p>  
<p>예상대로 황동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기대했던 상황과는 좀 다르긴 했지만.</p>  
<p>진우가 헌터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째, 그간 많은 헌터들을 만났다.</p>  
<p>그중 한 사람이 오 씨 아저씨였다.</p>  
<p>오랜 프리랜서 생활을 정리하고 소일거리 삼아 협회 일을 도왔던 헌터였다.</p>  
<p>"도마뱀들을 조심해라."</p>  
<p>오 씨가 종종 했던 말이었다.</p>  
<p>레이드를 하다 보면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온다.</p>  
<p>그럴 때 일부 비양심적인 헌터들은 기존 멤버가 아니라거나 혹은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방금 전까지 동료였던 이를 일부러 희생시킨다고 한다.</p>  
<p>자기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.</p>  
<p>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처럼.</p>  
<p>'꼬리 자르기...'</p>  
<p>오씨는 그런 헌터들을 '도마뱀', 그런 행위를 '꼬리 자르기'라고 불렀다.</p>  
<p>규정상 C급 게이트의 최저 공략 인원은 10명이다.</p>  
<p>그런데 황동석 팀의 고정 멤버는 여덟 명이란다.</p>  
<p>"아시잖습니까, 개인 공격대에서 치유계열 헌터님 모시기 쉽지 않은 거. 저희는 늘 이렇게 했는데요, 뭘."</p>  
<p>늘 이렇게 했다고 말할 만큼 자주 C급 게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도 말이다.</p>  
<p>'당연히 빈자리 두 개는 채울 필요가 없었겠지.'</p>  
<p>언제든 자를 수 있는 꼬리가 필요하니까.</p>  
<p>놈들이 E급 헌터든, 초짜 헌터든 가리지 않고 받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.</p>  
<p>그리고 지금.</p>  
<p>황동석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성진우와 유진호를 버리기로 작정했다.</p>  
<p>'나한테는 잘된 일이다.'</p>  
<p>진우는 황동석의 의도를 읽었음에도 내색하지 않았다.</p>  
<p>오히려 원하던 바였다.</p>  
<p>하지만 일신에 자신이 있는 진우와 오늘 처음 헌터 일을 시작한 유진호는 사정이 달랐다.</p>  
<p>유진호는 불안함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아니, 그래도 그건 좀... 차라리 다 같이 가는 게."</p>  
<p>진우는 뒤쪽에 있던 헌터 하나가 허리춤 쪽으로 손을 올리는 걸 보았다.</p>  
<p>그래서 유진호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.</p>  
<p>"갔다 오시죠. 여긴 저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."</p>  
<p>허리춤으로 가던 헌터의 손이 멈췄다.</p>  
<p>"형...?"</p>  
<p>유진호가 의아해했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저어 보였다.</p>  
<p>좀 시끄러운 녀석이긴 해도 이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.</p>  
<p>조금 전에도 자신이 손해 보는데도 굳이 진우의 계약서를 들고 가서 배분에 넣어 주려고 했지 않은가.</p>  
<p>황동석은 두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차는 요 앞에 대 놨으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그럼."</p>  
<p>황동석 이하 여덟 명이 보스 방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발소리는 빠르게 멀어졌다.</p>  
<p>유진호가 진우에게 따지듯 물었다.</p>  
<p>"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? 그러다 저놈이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."</p>  
<p>거미가 어지간히도 무서운 듯했다.</p>  
<p>'얘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보네.'</p>  
<p>진우가 속으로 혀끝을 찼다.</p>  
<p>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도 귀찮았다.</p>  
<p>진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황동석이 보스 방 쪽으로 돌아선 것은 그때였다.</p>  
<p>뒤를 따르던 헌터들도 멈춰 섰다.</p>  
<p>보스 방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까지 왔다.</p>  
<p>이 정도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.</p>  
<p>얼굴에서 미소를 지은 황동석이 옆에 서 있던 조규환에게 턱짓했다.</p>  
<p>"규환아, 보스 방 입구 막아 버려라."</p>  
<p>"터트려서 무너뜨릴까요?"</p>  
<p>"그래, 너무 심하게 하진 말고. 좀 있다 우리 들어가야 하니까."</p>  
<p>이철진이 물었다.</p>  
<p>"황 형,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있음까? 걍 거기서 다 죽여 버리고 시작하지."</p>  
<p>황동석이 인상을 팍 쓰고 눈을 부라렸다.</p>  
<p>이제 접대용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그거 하난 편했다.</p>  
<p>"죄, 죄송함다."</p>  
<p>이철진은 겁먹은 듯 눈을 내리깔았다.</p>  
<p>황동석이 혀를 끌끌 찼다.</p>  
<p>"거기서 싸우다 거미라도 깨면? 마나석은 언제 캐서 옮기게?"</p>  
<p>"죄송함다."</p>  
<p>조규환이 끼어들었다.</p>  
<p>"황 형, 거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... 우리가 마나석 캐는 도중에 놈이 깰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럼 피해가 클 텐데."</p>  
<p>그 무시무시한 벌레형 마수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배를 채우는 놈이다.</p>  
<p>채굴 작업 중 무방비로 습격당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.</p>  
<p>"그래서."</p>  
<p>황동석이 씩 웃었다.</p>  
<p>"저 두 놈을 먹이려는 거 아니냐."</p>  
<p>"아-."</p>  
<p>조규환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지금은 거미가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었다.</p>  
<p>10시간 뒤일 수도 있고, 1시간 뒤일 수도 있고, 1분 뒤일 수도 있었다.</p>  
<p>그러니 일단 거미를 깨워서 먹이를 먹이자는 거다.</p>  
<p>입구를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이면 아무리 둔감한 마수라도 잠에서 깰 테니.</p>  
<p>황동석이 말을 이었다.</p>  
<p>"마나석은 배가 부른 거미가 다시 잠들면 그때 캐면 돼."</p>  
<p>협회에 허가받은 시간은 5일.</p>  
<p>아직 4일 하고도 반이 더 남았다.</p>  
<p>일단 기다렸다 거미가 시간 안에 잠들지 않으면 그냥 처치하고 게이트가 닫히기 전까지 최대한 마나석을 캔 뒤 나가면 그만이다.</p>  
<p>1시간 안에 다 캐지는 못하겠지만 성진우와 유진호 두 사람의 몫이 줄어드니 어느 정도의 손해는 만회할 수 있을 터였다.</p>  
<p>그게 불안에 떨며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?</p>  
<p>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.</p>  
<p>'물론 그건 최악의 경우고...'</p>  
<p>운이 좋으면 두 사람 몫도 줄이고, 마나석도 다 캐고, 거미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들고 있던 값비싼 장비들은 덤.</p>  
<p>'그 검하고 방패, 못해도 몇억은 나갈 거 같던데.'</p>  
<p>전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였다.</p>  
<p>황동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"입구 막아 놓고 얼른 담배나 피러 가자."</p>  
<p>"예, 형."</p>  
<p>짤막하게 대단한 조규환이 손끝에 눈부신 빛이 모여들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..."</p>  
<p>유진호의 시선은 거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숨소리도 조심스럽다.</p>  
<p>유진호가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.</p>  
<p>"저 거미 놈, 설마 깨지는 않겠죠?"</p>  
<p>"글쎄다."</p>  
<p>진우는 말을 아꼈다.</p>  
<p>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은 예상하고 있었지만, 사실대로 말해 줬다간 유진호가 기절할 것 같았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방금 그게 유진호 입에서 5분 만에 나온 첫마디였다.</p>  
<p>겁이 나긴 되게 나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그렇게 말 많던 녀석이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퍼어엉-</p>  
<p>굉음과 함께 보스 방 입구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.</p>  
<p>"어, 어? 어, 어!"</p>  
<p>유진호가 급히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.</p>  
<p>하지만 무너진 돌더미는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다. 힘껏 밀어 봤지만 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도 천천히 그리로 걸어갔다.</p>  
<p>"끄응-! 형, 같이 좀 밀어 줘요!"</p>  
<p>유진호는 아직도 돌 더미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.</p>  
<p>'조규환이라고 했었나?'</p>  
<p>굉음이 들리기 전 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.</p>  
<p>빛을 다루는 C급 마법사.</p>  
<p>그놈 짓이 분명했다.</p>  
<p>진우는 돌 더미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았다.</p>  
<p>'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겠다.'</p>  
<p>돌의 무게가 팔을 타고 전해졌다.</p>  
<p>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.</p>  
<p>살짝 힘을 주자 돌벽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.</p>  
<p>하지만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.</p>  
<p>"아!"</p>  
<p>돌을 밀다 말고 유진호가 알았다는 듯 소리쳤다.</p>  
<p>유진호는 벌겋게 물든 얼굴로 진우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이 개자식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겁니다! 마나석을 나누기 아까우니까 입구를 막아서 거미한테 죽게 만들려는 거라고요!"</p>  
<p>'참 빨리도 알아챈다.'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적당히 맞장구쳐 주었다.</p>  
<p>"그러게. 큰일이다."</p>  
<p>"헉!"</p>  
<p>순간 유진호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해갔다.</p>  
<p>핏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라고 할까.</p>  
<p>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의 눈동자 위에 거대한 마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돌아섰다.</p>  
<p>"쿠룩, 크루룩."</p>  
<p>충격으로 잠에서 깬 거미가 그 육중한 몸을 서서히 일으키고 있었다.</p>  
<p>집채만 한 몸집.</p>  
<p>수십 개의 눈.</p>  
<p>흉측한 입.</p>  
<p>길디긴 다리.</p>  
<p>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니 가만히 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놈이었다.</p>  
<p>"으..."</p>  
<p>유진호는 신음을 흘렸다.</p>  
<p>온몸이 돌처럼 굳어 갔다.</p>  
<p>반면 진우는 거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창고에서 '카사카의 독니'를 불러냈다.</p>  
<p>'저건 내 거다.'</p>  
<p>올라간 능력치를 시험해 볼 좋은 기회였다.</p>  
<p>'카사카의 독니'가 저절로 오른손 안에 나타났다.</p>  
<p>스르르-</p>  
<p>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.</p>  
<p>진우는 단검의 손잡이를 힘껏 움켜 쥐었다.</p>  
<p>헌터가 헌터로 불리는 이유!</p>  
<p>이제부터 진짜 사냥의 시간이었다.</p>  
<p>"자, 잠깐, 형!"</p>  
<p>그런데 거미에게 향하는 진우의 소매를 유진호가 잽싸게 붙잡았다.</p>  
<p>"뭐, 뭐 하시려고요?"</p>  
<p>유진호의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왼손 엄지로 어깨 너머를 가리켰다.</p>  
<p>"저거 잡아야지."</p>  
<p>진우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태 황동석 일행을 따라다녔던 거였다.</p>  
<p>황동석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던전의 마수들을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.</p>  
<p>경험치와 마정석을 독차지할 좋은 기회니까.</p>  
<p>'보스가 마수들을 다 처먹지만 않았어도...'</p>  
<p>건져갈 게 더 많았을 텐데.</p>  
<p>그게 아쉬웠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사정을 모르는 유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'이 형이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?'</p>  
<p>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있었다.</p>  
<p>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가끔 정신줄을 놓기도 한다고.</p>  
<p>눈앞의 E급 헌터가 혼자서 C급 던전 보스를 잡겠단다.</p>  
<p>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무엇인가?</p>  
<p>유진호가 얼빠진 얼굴로 다시 한 번 물었다.</p>  
<p>"저걸 형이 잡겠다고요?"</p>  
<p>진우는 곤란한 듯 이마 위쪽을 긁적이다 되물었다.</p>  
<p>"그럼 니가 잡을래?"</p>  
<p>10. 기브 앤 테이크</p>  
<p>진우는 유진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돌아섰다.</p>  
<p>대답은 들을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다.</p>  
<p>처음부터 유진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.</p>  
<p>도와준다고 따라나서지 않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.</p>  
<p>'방해만 될 테니.'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거미에게 접근했다.</p>  
<p>거미도 이쪽을 발견했는지 여덟 개의 다리를 이용해 방향을 틀었다.</p>  
<p>다가온다.</p>  
<p>거미는 처음 보는 먹잇감이 신기해서인지 서두르지 않았다. 길고 굵은 다리로 지면을 밀어내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 왔다.</p>  
<p>"후우-."</p>  
<p>거대한 몸뚱이가 점점 시야를 잠식해 들어오니 숨이 턱턱 막혀 왔다.</p>  
<p>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쿵쾅쿵쾅.</p>  
<p>진우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.</p>  
<p>침착해야 한다.</p>  
<p>그러면서 합정역 인던의 2층 끝에 처음 섰을 때의 느낌을 떠올렸다.</p>  
<p>푸른 독니 카사카.</p>  
<p>하지만 눈앞의 거미에게서는 그때만큼의 압박감은 전해지지 않았다.</p>  
<p>충분히 할 만하단 소리다.</p>  
<p>애초에 공략이 불가능한 보스라고 판단했다면 여기에 남지 않았을 거다.</p>  
<p>"끄루루룩."</p>  
<p>거미의 반질거리는 검은색 눈깔에 얼굴이 반사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다.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